



태고종 영산재보존회가 세계 각국을 돌며 시연하고 있는 영산재 공연에 세계인들이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2010년 3월 잠실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공개회 기념 영산재의 한장면.

세계 문화유산 ‘영산재’... 인류 정신문화 상관성 모색

영산재 보존회, 제10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

10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며 한국불교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영산재(靈山齋)가 수 세기가 지난 후에도 본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보존과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영산재 1번지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열렸다. 2003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회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는 1987년 이후 영산재보존회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영산재를 시연하는 등 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영산재보존회는 2003년 1회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적 불교예술로서 세계적 무형문화재 보존가치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공연과 델라비드대학에서 거행된 제9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는 유대교와 불교 등 종교 간의 통섭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10월 5일 신촌 봉원사 옥천범음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영산재 학술세미나에는 보존회 소속 스님 50여 명과 관련학자 100여명이 참여해 장엄을 더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영산작법이 모든 재의식에 선행되는 의의임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심 교수는 ‘영산수륙’ ‘영산각배’ 등 영산작법이 당시 모든 불교의식에 사용됐음을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허 스님 ‘영산재, 불교 최상법식’

이날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관 하에 ‘불교의식의 현황 -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제10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

해 영산재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원허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등 관련 스님들과 김종규 문화유산국 민선탁 이사장,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범현 스님 등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옥천범음대학 학장 원허 스님은 개회사에서 “영산재는 불교의식 중 가장 장엄한

최상의 법식”이라며 “이제 우리는 영산재가 세계 다른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류 공통의 정신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은 “일제강점기 존폐 기로에 섰던 영산재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영산재 원형을 찾고 우리 자산을 물려주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재의 종류와 분류법에 관한 일고찰’ △양은용 원광대 교수의 ‘한국 불교의례의 전통과 석문의법’ △박진태 대구대 교수의 ‘한국 영산재와 작법부’ △정재만 숙명여대 교수의 ‘승무와 불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김세종 동국대 교수의 ‘불교음악 선율분석’ 등 국내 학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심상현 교수 ‘영산재는 불교 선행의식’

“영산재는 모든 의식의 선행의식으로 여타 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됐다. 모든 전통 의식은 영산작법이 구성된 11세기 이후 비로소 ‘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문화학과 교수는 영산재 의식이 불교의식에서 필수 요소임을 역설했다.

심 교수는 “지금까지 재와 작법의 구분 없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용됐지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영산작법은 현공의 식인 상단권공을 의미하고 ‘영산재’는 시련 절차 등 전체 의식을 말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영산 작법이 구성되기 전 수록재를 예로 들면 엄밀히 말해 수록작법으로 불러야 한다”며 “영산작법과 수록작법을 합친 재라는 의미에서 ‘영산수륙’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런 예는 영산각배라는 재의 명칭이 사자성이 처럼 당시 통용됐음에서 살필 수 있다”며 “한국의 모든 재는 영산재로 통일되

재의 작법부가 그 사상적 미학뿐만 아니라 운동미, 구성미, 감정표현의 미학도 우수한 불교공연 예술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영산재의 작법부 중 범고춤과 타주춤은 정중동의 예법과 우주적 생생의 미, 몸과 소리의 파동 등을 표현한 최고의 예술”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바라춤과 나비춤 또한 분석하면 작법부의 미학적 특성이 총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예능보유자

대만·중국 등 국내외 석학 15명, 영산재의 문화적 요소 조망 세계문화 가치 재확인, 불교문화 보급 통한 국민정서 순화 효과

고 그 세부 목차에 ‘영산’ ‘수륙’ ‘예수’ ‘각배’ 등 4종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현 교수는 또 “봉원사 영산재는 ‘영산 수륙’ ‘영산 예수’ ‘영산 각배’를 아우르는 의미의 영산재”라며 “영산재 기능보유자가 수록재, 예수재, 각배재 등을 모두 봉행할 수 있어야 함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불교 의식의 명칭도 영산 수록재 등으로 고쳐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박진태 교수 ‘작법부 미학 가치 총분’

박진태 대구대 교수(문화재위원)는 영산

재의 작법부가 그 사상적 미학뿐만 아니라 운동미, 구성미, 감정표현의 미학도 우수한 불교공연 예술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영산재의 작법부 중 범고춤과 타주춤은 정중동의 예법과 우주적 생생의 미, 몸과 소리의 파동 등을 표현한 최고의 예술”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바라춤과 나비춤 또한 분석하면 작법부의 미학적 특성이 총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의은 스님 ‘불교예술이 국민정서 순화’

서울 불광산사 주지 의은 스님은 대만에서 불광산 불교문화예술 전파가 국민정서를 순화하고 문화 희곡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의 저변확대에 기여했음을 들고 영산재를 비롯한 불교문화예술의 보급을 주장했다.

의은 스님은 “대만에서 불교예술은 문화

예술영역에 영감과 깨우침, 그리고 풍부한 창작내용을 불러넣고, 서로 융성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일 중국연변대 교수도 “불경 번역과정에서 중국에 전파된 범문의 범용자모는 중국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며 “중국 전통 음악의 표현행식을 바꾸었으며 민간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경, 상해의 불교음악단이 세계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음악단 역시 세계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영산재 세계순회공연 또한 불교문화를 통한 세계문화 선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전에서 영산재 및 범패의 기반을 찾기 위한 연구 논문도 발표됐다.

김세종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는 ‘한국 범패선율의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범패선율의 4성 체계는 음운이 아닌 발성과정에서 나오는 고저장단”이라며 “1826년 궁선 스님이 편찬한 <작법귀감>에 그 음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은용 원광대 교수는 “1935년 안진호가 찬집한 <석문의법>은 영산재를 비롯한 전래 의식을 한글로 편집해 전하고 있다”며 “불교의례집의 존재는 당시 작법의식이 꾸준히 요청됐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는 150여 대중이 모여 영산재 의미를 되새겼다.



원허 스님



법현 스님



심상현(만춘) 교수



김세종 교수



박진태 교수



양은용 교수



정재만 교수



의은 스님

불교 세계무형문화유산 무엇이 있나?

방글라데시 바울 노래

방글라데시 벵골인들의 고대 음악은 대부분 기도음악이다. 대부분의 민속노래는 신에 대한 찬양과 창조와 연관돼 있다. 바울들은 방글라데시 시골지방과 인도 서벵갈의 신비주의 음악가들로 그들의 음악과 삶의 방식은 벵갈 문화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시인 타고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바울들은 마을 근처에 살거나 이곳 저곳을 떠돌며 ‘엑타라’, 줄이 하나인 ‘루데 토타라’, 북의 일종인 ‘뽉키’를 이용해 반주하고 노래한다.



부탄 드라마체 북춤

2005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탄의 고전 춤은 종교적 가장행렬과 의식적 춤의 일종이다. 8세기 만들어졌으며 마하야나 불교 전통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렸다. 15세기 들어 부탄 문화생활로까지 영역을 넓힌다.

부탄 춤은 퇴마의식의 일종으로 춤을 보는 것으로 죄악을 벗고 깨우침의 길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어진다.

매년 체추, 드롭초에 같은 축제기간 사찰과 수도원 등에서 3-5일간 진행된다. 이 춤은 16명의 가면을 쓴 남자무용수들이 춤을 춘다.



인도 쿠티야탐

2001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도 쿠티야탐은 고대 산스크리트 연극에서 파생된 극의 일종이다. 최근까지 공연 날짜는 점성술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됐으며 공연 자체는 죄악을 숙죄하는 극적 봉헌으로 간주됐다. 쿠티야탐 공연은 두 브라만 문중에서만 가능하다.

공연은 몇몇 밤낮으로 진행된다. 현재 트리슈루에 칼라만다 라암 센터, 트리반드룸에 말기 센터, 이린잘라쿠드에 차키야르 매드혼 센터 등이 지어져 다양한 인도 계층과 외국인들에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노오

노오(能)는 14세기 후기 정립돼 600여년간 전승돼 온 일본 고전극이다. 현재 대본이 남아있는 노오의 종목은 1700여종에 달하며 현행 노오로서 상연 가능한 곡만도 약 240여종에 달한다.

노오의 원류는 사루가쿠(猿樂)라는 것으로 11세기 헤이안 시대부터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흉내는 내는 것으로 행해졌다.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직업적인 예술단체인 좌(座)가 생겨난다. 16세기 후반에는 노오의 질적 변화가 시작돼 노오를 익히는 것이 사교의 조건이 되고 신분 상승을 위한 조건이 되기도 했다.

